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옳음', '그름' 등과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을 탐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윤리학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도덕 원칙의 제시를 탐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① 갑: 윤리학은 사회의 관습을 경험 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② 갑: 윤리학은 도덕 명제의 분석보다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③ 을: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④ 을: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 및 경제 체계와 생활 세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담론과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은 물론 개인적 바람이나 욕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주장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강요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① 담론을 통한 합의 과정보다 담론의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각자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때 이상적인 담론이 가능하다.
- ③ 담론의 결론은 토론보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도출해야 한다.
- ④ 공적 현안에 대한 시민의 문제 제기는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 ⑤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담론 절차를 지켜야 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방탕하기에 신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소명(召命)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신은 인간에게 고유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지정하고, 인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하였다.

을: 인간은 노동으로 자연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즉 살아 있는 노동을 죽은 노동이 지배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 ① 갑: 부(富)의 축적을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직업은 신이 내린 명령이므로 귀천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 ③ 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보장해야 한다.
- ④ 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력하여 노동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 ⑤ 갑, 을: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원해도 적극적인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단지 연명 치료 중단으로 한정하여 환자와 그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불치병 환자에게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면 연명 치료 중단 이외의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을: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약물 주입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① 환자는 존엄한 존재이므로 안락사의 시행을 금지해야 하는가?
- ② 소극적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③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 ④ 안락사를 위한 연명 치료 중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환자가 동의한다면 인위적인 생명 단축 행위는 허용 가능한가?

5.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나타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찾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책이란 잘 썼거나 못 썼거나, 단지 그뿐이다.

을: 예술은 작가의 비판 정신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청중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되는 체계이다. 미각의 만족감이 결코 음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듯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다.

<보 기>

ㄱ. 갑: 예술은 오직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ㄴ. 을: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해야 한다.
 ㄷ. 을: 예술은 이성적 의식을 타인과 감정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ㄹ. 갑, 을: 예술가는 윤리적 공감을 발휘하여 미적 표현을 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배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녔으므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 배아 복제는 잠재적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배아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
 을: 남녀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생긴 배아는 존엄한 생명체이다. 하지만 복제된 배아는 인공물에 불과하므로 난치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미래의 인격체가 될 배아를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ㄴ. 갑: 배아와 인간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동등하게 지닌다.
 ㄷ. 을: 과학 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조작을 금지해야 한다.
 ㄹ. 갑, 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볼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을 섬길 줄 모르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며, 삶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어진 자가 삶을 구하고자 인(仁)을 헤치는 경우는 없으며, 죽음으로써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을: 지인(至人)은 신묘하게도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부리면서 이 세상 밖에서 노닌다. 삶과 죽음도 그를 변하게 할 수 없거늘 어찌 이롭거나 해로운 것에 얽매이겠는가?

<보 기>
 ㄱ. 갑: 현세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ㄴ. 을: 생사에 대한 분별심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ㄷ. 을: 외물의 구속에서 벗어나 도(道)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ㄹ. 갑, 을: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신체적인 폭력이고, 구조적 폭력은 정치와 경제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착취이다.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을: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① 갑: 물리적인 폭력의 종식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 ② 갑: 인간 안보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③ 을: 자발적인 합병 절차를 거쳐 범국가적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 ④ 을: 각국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국제 연맹의 법질서를 따라야 한다.
- ⑤ 갑, 을: 내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외부 개입은 정당하다.

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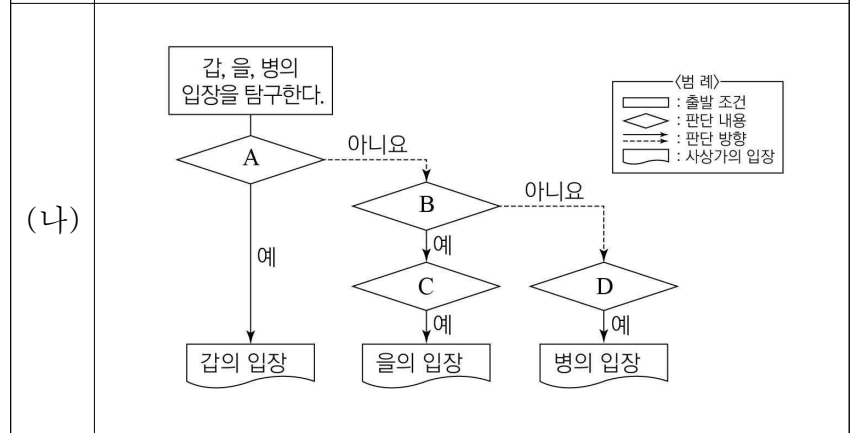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 대한 오해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생동감이 생깁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 ① 사랑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상대방의 정신적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다.
- ⑤ 사랑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동등한 사람들 간에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을 때 정의롭다. 비례적인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다.
 을: 분배는 개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를 때 정의롭다. 이러한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병: 분배가 정의로운 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소유물의 분배 정의는 역사적이다.



<보 기>
 ㄱ. A: 분배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를 때 실현될 수 있는가?
 ㄴ. B: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는가?
 ㄷ. C: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재산 소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ㄹ. D: 취득의 과정이 부당한 사적 소유는 교정의 대상이 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절대 빈곤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어떤 것이 희생되지 않는 한 그를 도와야 한다. 그 행위는 인종에 상관없이 비용 대비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을: 불리한 조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있다면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인류의 쾌락을 증진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이다.
- ② 갑: 원조의 대상을 최대 선의 산출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③ 을: 원조는 수혜국이 정치적 자율성을 이룰 때까지만 지속된다.
- ④ 을: 원조의 목표는 국가 간 복지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 ⑤ 갑, 을: 원조를 자선이 아니라 당위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한다.

12.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과학자의 책임은 윤리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내는 것에 있으며, 연구 결과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실제 사용자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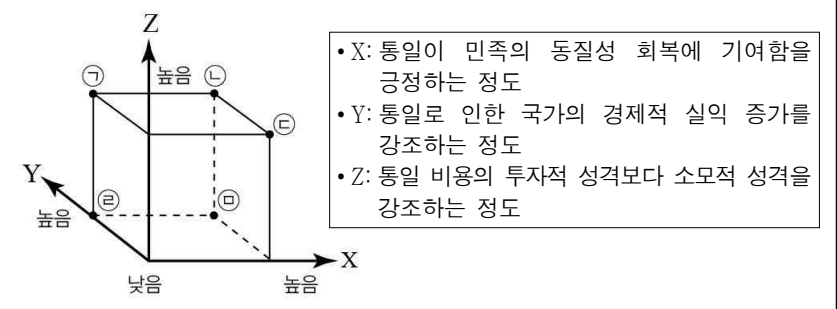
을: 과학자는 연구 대상의 선정부터 그 결과의 응용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과학자의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날조 또는 변조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에 있다.

- ① 갑: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② 갑: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도덕규범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③ 을: 과학자는 가치 판단을 토대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 ④ 을: 과학자는 기술의 응용 결과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해야 한다.
- ⑤ 갑, 을: 과학자는 이론을 검증할 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1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통일 비용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통일로 인해 이질화된 남북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조세 부담 증가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나) 통일 비용으로 인한 손실은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통일로 인해 민족의 일체감이 드높아져 문화적 번영을 이룰 수 있으며, 내수 시장 확대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다음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존재가 조건[緣]이 되어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이 조건이 되어 늙음과 죽음,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생겨난다.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문제 상황>

A는 평소 음료를 사서 마실 때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TV에서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해양 동물의 모습을 보고 친환경 컵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평등함을 인식하여 판단하세요.
- ② 만물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고려하세요.
- ③ 인간과 동물은 모두 불변의 실체임을 자각하여 행동하세요.
- ④ 자비심을 발휘하여 자신만 편리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세요.
- ⑤ 인간으로 인해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하여 결정하세요.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형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다. 형벌은 다른 선(善)의 축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p> <p>을: 사형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자기 보존에 이바지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와 모든 힘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아래에 있다.</p> <p>병: 사형은 범죄 억제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줄 뿐이다. 범죄 억제의 효과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 있다.</p>
(나)	

- <보 기>
- ㄱ. A: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 ㄴ. B: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ㄷ. C: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 가능하다.
 - ㄹ. D: 형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전체 유권자에게 다수의 정의감을 근거로 법이나 정부 정책이 부정의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다.
 을: 시민은 한순간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길 수 없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뿐이다.

<보 기>
 ㄱ. 갑: 시민 불복종 여부는 법의 부정의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ㄴ. 갑: 시민 불복종으로 정의롭지 않은 정치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
 ㄷ. 을: 모든 법의 준수가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방법이 실패했을 때만 행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삶은 좋은 정보가 많이 생산될수록 풍요로워진다. 정보의 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는 창작자의 노동이 투입된 지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가 쌓아온 기반 위에 정보가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유용한 정보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고 생각한다.

- ① 정보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활용해야 함을 무시한다
 ② 정보의 공유로 인해 창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함을 간과한다
 ③ 정보 창작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무시한다
 ④ 정보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 유산이 축적되었음을 무시한다
 ⑤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18.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하고 최하층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인데 어떤 계급도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급 분류 기준을 능가하도록 부추기는 차별적인 비교 관행이 소비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차별화하여 타인의 부러움을 사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경쟁에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갈수록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편협해진다.

- ① 유한계급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소비한다.
 ②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면 과시적 소비 행태는 사라지게 된다.
 ③ 경쟁적 소비 현상으로 인해 그릇된 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④ 물건의 가격이 오를지라도 수요량의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⑤ 특정 계급에 국한되어 과시적 소비 욕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평등의 원리는 한 존재의 고통과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을 똑같이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다. 을: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병: 동물에 대한 감사는 직접적으로 볼 때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동물 학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20px;"> </div> <div>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 → A →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욕구를 지녔음을 간과한다.
 ③ C, E: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④ D: 인간 외의 일부 유정물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무시한다.
 ⑤ F: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가. 자네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스승의 입장에서 무척 자랑스럽네. 일전에 내가 강조했듯이 ㉠은/는 제(悌)와 함께 인(仁)의 근본이라네. ㉠은/는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달리 부모님의 속마음까지 살피서 공경으로 모시는 것이지. 또한 형제자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네. ㉠와/과 제(悌)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뒷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드물다네. 부디 ㉠의 실천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 주길 바라네. ... (후략).

<보 기>
 ㄱ. 자기 자신의 이해(利害)관계에 따라 공경하는 것이다.
 ㄴ. 보은(報恩)의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ㄷ.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ㄹ. 상경여빈(相敬如賓)의 예(禮)를 다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